

'91 여성상 입수경씨 선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백인회관서 시상

평생·평등 노동권 확보 내건 노동자 대회도

3월8일은 '세계 여성의 날'
여성의 날은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면서도 사회 곳곳에서 성차별을 받는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 아래 국제적인 자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유엔이 정한 기념일이다.

이 날은 1908년 3월8일 미국의 1만5천여 여성 섬유노동자들이 뉴욕 러트거스광장에서 남녀선거권 차별철폐와 노조결성권을 외치며 대대적인 가두시위를 벌인 날을 기념하여 제정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1920년대 소수의 진보적인 여성들이 3.8기념대회를 열기도 했지만 그후 맥이 끊겼다가 지난85년부터 일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매년 여성대회가 열리고 있다.

유엔개발계획 사무총장인 윌리엄H. 드레이퍼 3세는 올 여성의 날을 맞아 세계 각국에 성명서를 보내는 한편 8일 뉴욕에서 기념식을 갖는다.

드레이퍼 사무총장은 "유엔이 여성을 위한 10년(1976~85)을 선포한 이래 지난 15년 동안 여성의 역할과 지위가 눈에 띄게 향상됐지만 여전히 성적불평등이 남아있다"고 말하고 "모든 국가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촉구했다.

드레이퍼총장은 유엔개발계획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올해는 '여성의 개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환경, 빈곤, 에이즈(AIDS), 난민과 관계된 성차별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드레이퍼총장은 이 성명서에서 ▲여성의 임금이 평균 남성의 3분의2이고 ▲수입, 토지, 신용보증 및 사회적 서비스의 분배가 남성에게 치우쳐 있으며 이러한 성차별은 자원빈국에서 더욱 심하고 ▲남반구 여성은 북반구에 비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사망률이 12배나 높고 매년 산모가 50만명씩 사망하며 ▲성적불평등은 고등교육과 성인문맹률 및 평균수명 등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며 문맹인 3명중 2명은 여성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여성단체연합(회장

해마다 여성의 날에는 풍물패놀이, 어머니춘극, 슬라이드 상영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이효재)도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8일 하오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제7회 한국여성대회를 열고 91년 여성상 수상자로 복역중인 입수경씨를 선정, 시상했다.

여성단체연합은 올 중점사업인 평생, 평등 노동권 확보를 기치로 내걸고 여성노동자회의 이영순씨의 주제발표와 함께 여성근로자 2~3명의 현장체험담을 들었다.

또 평화군축운동, 탁아대책, 지방자치제의 참여 등 여성계가 당면한 문제 전반에 대해 산하단체들의 힘을 결집시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신덕자간사는 이날 행사가 "여성들의 투지를 모아 힘찬 전진을 다짐하는 자리로 향후 여성운동을 전개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10일에는 '3·8세계 여성의 날'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여성노동자 전진대회'가 영등포 성문박물관에서 열린다.

한국여성노동자회(회장 한명

회)와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의장 김영대)가 공동 주최하는 이 대회는 지난 88년 시작해 올해로 4회째를 맞고있다.

이번대회는 '평생평등노동권 확보를 위하여'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1부 '전진하는 여성노동자'를 비롯, 2부, 3부로 나뉘어 슬라이드상영, 어머니 춘극, 풍물패연합의 풍물굿놀이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89년부터는 매해 한국씩 '올해의 여성노동자노래'를 발표해 근로여성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윤혜련총무는 "고용의 불평등문제, 해고, 폐업등이 근로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며 "이대회가 여성으로서의 자각과 권리, 여성으로서의 권리확보 등에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70년대 민주노조지도자들이 중심이 돼 87년 3월 창립됐으며 매달 마지막주 목요일을 '여성의 날'로 정해 행사를 갖고있다.

새로가 91.3.9